

나라는 주체의식을 이긴 승리자가 구세주

이긴자의 영을 받아야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것을 모른다면 학문이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였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피가 6000년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것이 고로 사람의 생명의 나이는 6000살인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시기로부터 나이를 치는데 사실은 사람의 피의 나이가 진짜 나이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하나님이었던 아담과 해와의 피로 이루어졌고 아담과 해와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낳고 해서 6000년간을 흘러왔기 때문에 그 피의 나이가 6000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은 이 세상에 학문이 없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피가 오늘날에 이른 것이지, 하나님의 피가 아닌 공중에서 떨어진 핏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식인 고로 틀림없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이치가 맞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 고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적인 현상이지, 특별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피도 있는 고로 마귀의 영이 되는 마귀의 마음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피만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될 때에는 보통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 하나님이 되는 고로 강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이긴자 하나님의 영이 믿음이고, 생명과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강한 이긴자의 영을 구세주가 부여해주고, 보통 사람이 부여해주지 않으니 승리자가 승리의 영을 부여받지 않으면 승리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믿음은 마지막 때까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말세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만약에 60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 믿음이 있었다면 그 시기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되고 말았겠지요? 믿음이 없었던 고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고,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라는 존재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승리자가 구세주인데, 승리자는 나라의 주체의식의 마귀를 이긴자인 것입니다. 나라의 주체의식을 이기고, 죽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앉게 되어 있는데 그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마귀를 이긴 영인 고로 승리의 하나님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이제 그대로 부활함을 입은 영이 승리의 하나님의 영인 고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이 부활함을 얻는 것이지, 승리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은 부활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로이슬은 구세주의 분신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부활의 진의를 모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육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죽이고, 마귀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고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는 고로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 곧 믿음이 되는 것이



구세주 조희성님

데 왜 그러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겨야 구원이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겨야, 마귀를 죽여서 없애버려야 믿음이 되는 것이지, 마귀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이긴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려면 마귀를 전멸시킬 수 있는 구세주가 나와야 하는데 구세주는 이긴자가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실패자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한 하나님이신 구세주가 이슬성신을 내리는데 이슬성신이 승리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성신을 내리지 아니하면 구세주야, 가짜야?

가짜요? 이슬성신이 곧 구세주의 분신이요, 이긴자의 분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알고 같이 온 우주에 딱 차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생미륵불의 분신이라고 열반경에도 써어 있는 것입니다. 열반경에 써어 있는 그 분신이 곧 이슬성신인 고로 이슬성신이 곧 구세주의 분신이요, 이긴자의 분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감로이슬성신이 감춰던 만나요, 감춰던 만나가 곧 믿음이고, 생명과일인 것입니다.

구세주라는 존재는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고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고로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20년간 봤어요, 1년간 봤어요? 21년간 봤어요? 그런 데도 이게 가짜예요? 미친놈들이 이 사람을 사이비교주라고 그러요? 저희들이 사이비교주이니가 진짜를 보고 사이비

교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세상인 고로 가짜가 언제든지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를 가지고 가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진짜지, 능력이 없으면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장담하고 말씀하기를 제단에 계속 나오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뭐든지 마음먹는 대로 잘 된다고 하는데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대로 안 되는 수가 있는데 자유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인 고로 그 말씀대로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되어지는 거요? 그러므로 자유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율법은 반대생활

하늘의 사람이 되려면 자유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자유율법이라는 것은 반대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유율법이라고 옛날 영모님 말씀했던 것입니다. 반대생활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지, 이제 그대로 이 세상 순리대로 행동하고 마음먹는 것은 자유율법이 아닌 마귀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율법을 지키면 마귀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고로 구세주는 여러분들에게 반대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반대생활을 100% 하게 되니까 대, 소변으로 시켜명게 썩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죠? 그 시켜명게 썩은 피는 마귀가 죽어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것이 고로 시켜명 피를

쏟고 난 후에 머리가 어지럽고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날아갈 것 같은 힘이 솟구쳤던 것입니다. 힘이 너무 뻥치는 고로 큰 바위를 짊어지고 밀실까지 날랐다는 말을 했죠? 그때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반대생활을 하려고 힘든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다가 기절을 했던 것은 마귀가 죽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완전히 죽고 마귀 피를 완전히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기절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완전히 죄가 되는 마귀를 전멸시켜서 없애버리고 나니까 힘든 걸 모르고, 누가 때려도 아픈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은 힘든 것도 모르고, 괴로운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병이 걸릴 수도 없는 고로 영생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점령하고 있는 고로 마귀를 이기고, 죽여 버려야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데 강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약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려면 현재 나라의 주체의식으로 있는 마귀의 영을 죽여서 없애버려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라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지, 마귀를 이기지 못한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야 부활함을 얻는 것이지, 마귀를 이기지 못한 하나님은 부활함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1년 6월 19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8장 여호수아》

1절: 가나안 침입

(3) 요단강이 갈라지다

숫담에서 여호수아가 사울 안에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말한 대로, 사흘이 지난 아침 일찍 어찌에 언약계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지나는 낮선 길을 여호와와 언약계가 인도하였습니다. 언약계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날부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모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한 것처럼,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언약계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되리라.”

이때는 출애굽 40년 12월(아달월) 초순으로, 10월(에브랴월)부터 시작하여 석 달 동안 내리는 가나안의 겨울 장맛비가 최고조로 이르렀습니다. 마침 아람(亞蘭)을 추수하는 이 계절에는 항상 요단 강물이 불어나 독을 넘쳐 흘렀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진두지휘 아래 언약계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다 / 벤자민 웨스트 (1738-1820) 작

여호와와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가에 침범하고 내딛자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었습니다. 언약계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강물이 멈추어 서 있는 곳에 들어가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라고 했습니다. 강 바닥에 조약돌로 가득 깔려 있는 가운데 유독 돌비석과 같은 돌 12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 12개의 돌 가운데 오직 하나만 색깔이 희고 윤기가 났고 그 나머지

는 조약돌처럼 살색과 회색으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희고 윤나는 돌비석을 취하려고 하였지만 그 흰돌은 꿈쩍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사람 요글리(Jogli)의 아들 북기(Buki)가 다가 가서 두 손으로 그 흰돌을 힘껏 들자, 그 재야 비로소 들리게 되어 그의 어깨에 메고 강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단지파의 북기(Buki)가 요단강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1. 북기(Buki):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시험하셨다'는 의미이며, 단지파의 족장으로 요글리의 아들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그 땅 분배를 위임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민34:22)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언약계를 멘 제사장들이 그 강에서 나와 그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순간, 강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양쪽 강둑에 철철 넘치도록 흘렀습니다. 출애굽 41년 정월(아빔월) 10일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매어 내온 돌 열두 개를 길갈(Gilgal)에 세우고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슬 같은 만나를 내리시어 이스라엘의 수많은 대중들을 먹여 살렸다는 것은 실로 놀라우리만치 큰 이적(異跡)이었습니다.



모세의 홍해 기적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계에 의한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한 돌 열두 개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니라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안젤라

시내산 아래에 열두 기둥과 고조선 시대의 12지파 와당

▶ 12지파 와당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받은 기둥(또는 장막)을 차지했지만 단지파만 블레셋 민족의 저항으로 장막에 거할 수 없게 되어 동북쪽으로 사라졌다고 하나의 점(點)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와당은 단지파가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에 도착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고조선을 설립할 때 제작한 와당이다. 그밖에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이 발견되었다.



▲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출24:4)



▲ 12지파 와당